

보도해명자료 (‘13.1.10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인수위’ 석유수급보고 전산화 도입’에 업계 반박
(‘13.1.10, 연합뉴스)

1. 기사내용

- ☐ 보일러등유는 2011년 7월부터 유통이 전면 금지됐고, 실내 등유도 작년 1~10월 생산량과 소비량이 전년 대비 19%, 5.3% 각각 감소한 점에 비춰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업계에서는 주장
- ☐ 주유소협회 측은 “최근에 적발된 가짜석유는 등유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석유 유통 경로 추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”고 주장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화 사업은 지경부가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‘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키로 한 사업으로서, 상기 기사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어 보도해명합니다.

- ☐ ‘12.1~10월 실내등유 생산·소비량의 감소는 난방연료인 등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전기·가스·지역난방 등으로 대체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이며,
- 가짜경유의 원료로 사용된 등유량이 줄어들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- ☐ 최근 3년간(‘09~‘11년) 가짜석유의 원료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
 - 가짜휘발유는 용제혼합형이 94%, 기타유형이 6%이며,
 - 가짜경유는 등유혼합형이 75%, 용제·기타혼합형이 25%임
- ☐ 본 사업은 가짜석유 근절, 그에 따른 탈루세액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, 상세 내용 및 기대효과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문신학 과 장 (02-2110-4890)
나한균 사무관 (02-2110-4893)

< 참고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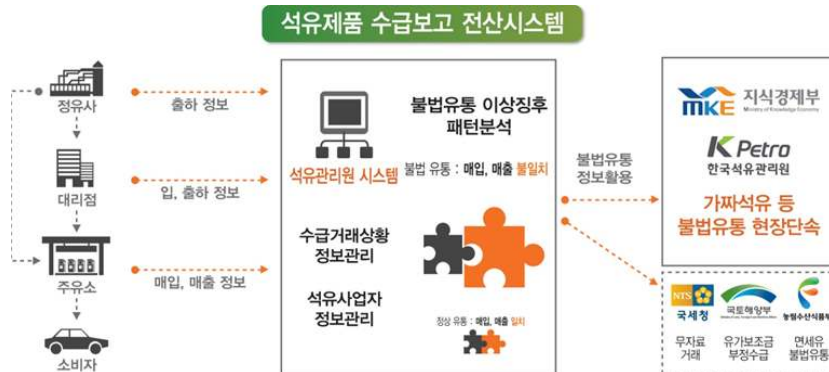
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

□ 추진 배경 :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추진

- 그간 현장단속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대책으로는 가짜석유 근절에 한계
 - * 가짜석유 탈루세액은 연간 약 1조원이며, 무자료, 면세유 등 포함시 약 3.7조원

□ 내용

-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전산화
 - 現 월1회 수기보고하는 수급거래상황을 매일 자동보고토록 변경
 - 정유사·대리점·주유소의 ERP, POS 등 전산장치를 통합서버와 연결하여 구매·판매·재고 등의 물량정보(가격정보 제외)를 관리
 - 물량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유통 의심업소*를 선별, 단속에 적용
 - * 거래내용 불일치,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, 거래량 급변 등



□ 기대 효과

- 가짜석유 등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세금탈루 방지 및 국민 보호
 - 가짜석유, 무자료거래,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, 면세유 불법유통 등에 따른 세수탈루 차단 가능